

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광둥성(廣東省)

김홍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hwkim@kiep.go.kr, Tel: 3460-1278)

차 례 ● ● ●

1. 개요
2. 주요경제지표 분석
3. 경제정책 방향
 - 가. 경제성장
 - 나. 구조조정
 - 다. 사회보장
 - 라. 지역개발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2014년 광둥성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1월 14일부터 7일간 광저우 시에서 개최되었으며, 본 회의에서 광둥성의 2014년 경제정책방향이 제시됨.
- ▶ 광둥성은 2013년 경제지표 목표를 순조로이 달성하였고, 2014년 내수시장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계획을 발표함.
 - 2013년 광둥성 지역총생산(GRDP)은 6조 2,164억 위안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GRDP 성장률, 고정자산투자, 소비재소매총액 등 주요경제지표가 모두 2013년 목표치를 상회하였음.
 -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대비 0.5%포인트 높은 8.5%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내수소비 확대와 연관된 소비재소매총액의 성장률을 13%로 제시함.
- ▶ 광둥성은 2014년에도 경제성장을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제도적 차원과 산업·무역·투자 부문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 광둥성은 경제규모가 가장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연관된 과제를 가장 중시하고, 특히 전자상거래 및 정보소비 촉진, 유통 인프라 및 채널 확대, 차세대 IT 및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육성 등을 강조함.
 - 특히 광둥성은 홍콩과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추진(CEPA 선행조치), 위안화 자유태환 시범사업 실시, 가공 무역 업그레이드, 해양산업 발전, 범주장(泛珠江) 삼각주 및 해양 실크로드 협력교류 등을 전개함.
 - 민간과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업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시장경쟁을 강조하는 경제체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저부가가치 업종을 도태시키고 과잉생산품목 감산을 추진할 계획임.
- ▶ 우리나라와 광둥성의 경제관계는 최근 더욱 긴밀해지는 추세이며, 전자상거래 및 통신정보서비스 등 신성장 소비시장의 진출과 금융·산업설계·차세대 IT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우선협력분야로 고려할 수 있음.

1. 개요

■ 2014년 1월 14일 광둥성 최대 정치회의인 광둥성 양회(兩會)가 7일간 개최되었으며 의료보험, PM2.5, 스모그, 자유무역단지 등의 이슈가 활발하게 논의됨.

- 광둥성 인민대표대회(한국의 지방의회)와 정치협상회의(정책자문기구)가 각각 2014년 1월 16~20일과 2014년 1월 14~18일, 총 7일간 광저우(廣州) 시에서 개최되었음.¹⁾
- 광둥성 정부 업무보고, 광둥성 2013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집행과 2014년 계획, 2013년 광둥성 예산집행보고와 2014년 예산안,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업무보고, 광둥성 인민감찰원 업무보고, 6대 안전이 결의됨.
-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의 대표직으로 총 746명이 참석하였으며, 823건의 의견사항을 수렴하였음.

클상자 1. 광둥성 위치와 개요(2013년)



주: *는 2012년 데이터이며 현재까지 2013년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음.

자료: 위키미디어(그림); 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DB;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 中國國家統計局; 廣東省統計局; 『廣東統計年鑑 2013』; 『2014年廣東省政府工作報告』.

- 특히 올해 광둥성 양회에서는 의료보험, PM2.5(지름 2.5 μ m 이하의 초미세 먼지), 스모그, 자유무역단지, 무료 와이파이 커버리지 확대, 개혁심화, 민생보장, 기초교육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됨.
- 회의 기간 중앙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목표수치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고, 광둥성 환경보호청장 리칭(李清)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의 정부대응은 다소 부족했지만 2013년에는 목표치를 완수하였다고 밝힘.²⁾

1) 지방양회는 매년 초 1회 개최되는 지방정부회의로서 양회 기간 지방정부 수장 선출, 전국 양회에 참석할 대표단 구성, 정부의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검토·확정함. 지방양회의 의의, 성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부용 외(2013), 「2013년 중국 지방양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중국성별동향브리핑 참고; 자료: 「省政府報告修改38处: 贵广南广铁路年内通车」(2014. 1. 21), 『南方都市报』.

2) 「李清委员: 广东将出台预案实施区域协同应对PM2.5」(2014. 1. 17), 『羊城晚报』.

- 무료 와이파이 커버리지 확대는 정보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함임.³⁾

■ 본고에서는 2014년 광둥성의 「정부업무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분석하고자 함.

- 글로벌 시장의 수요부진으로 더 이상 수출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2014년은 광둥성의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있어 중대한 시기임.
- 대외의존도가 높은 광둥성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전환해야 하고, 대내적으로 경제·사회·정부행정 분야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음.
- 「정부업무보고」의 내용 중 1/3은 2013년 업무보고와 성과, 2/3는 2014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무역단지(自貿園區), 네거티브 리스트(負面清單),⁴⁾ 공공 와이파이, 3D 프린터, 사물인터넷(IOT) 등이 올해 「정부업무보고」에 처음 등장하였음.⁵⁾
- 네거티브 리스트가 2곳에 언급되었고, 본 조치는 「다양한 소유제 경제」⁶⁾의 발전과 자유무역단지의 외자유치에 적용될 계획임.
- 자유무역단지는 두 번 제시되었으며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자유무역단지 설립을 신청할 계획임.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발전(134회)」이며, 그 다음으로 「개혁」과 「혁신(創新)」이 각각 75회, 50회 언급되었음.⁷⁾

- 「발전, 개혁, 혁신」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혁」은 체제, 제도, 시장 등과 연관지어 사용됨.
- 이외 특징적인 단어들로 「생태(生態)」와 「과학기술」이 각각 28회와 27회, 「민생」이 17회, 「전환(轉型)」이 14회 언급되었음.
- 2014년 발전 방향 중 하나로 녹색·저탄소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정부업무보고」에 처음 등장한 용어이며, 관련 어인 「생태」는 역대 최대인 28회 언급됨.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위칭안(余慶安)에 따르면 이는 지난 십 수 년간 경제발전에 대해 강조하다가 최근 생태환경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반영함.
- 「민생」도 최근 몇 년간 사용빈도가 증가하는 단어 중 하나임. 2005년 1회, 2009년 10회, 2014년에는 총 17회 언급되었음.

3) 정보소비는 통신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스마트전자기기, 전자상거래 등 관련 소비지출을 의미하는데, 중국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자동차 이후에 신(新) 소비영역으로서 정보소비 촉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임. 「商务部称正在研究搞活流通、促进消费的具体措施」(2013. 8. 1), 『路透』.

4)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은 규정된 미개방 영역 외에 여타 영역의 시장 진입을 모두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단지의 설립 배경 중 하나는 이것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효과를 살펴보기 위함임. KIEP 북경사무소(2013. 11. 29), 「18차 3중전회 분석」, 제6회 한중경제포럼.

5) 「乳粉、WiFi、负面清单等词写入广东省政府工作报告」(2014. 1. 17), 『广州日报』.

6) 중국에서 기업설립주체에 따라 국유와 집체(集体)는 공유제 경제, 개인과 민영(私营)·외국자본은 비공유제 경제로 구분함. 혼합소유제 경제란 공유제와 비공유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통칭함.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 국유기업이 독점적으로 잠식했던 시장을 개방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시장경쟁을 도입하기 위함임.

7) 「广东申报设立自贸区写入政府工作报告」(2014. 1. 17), 『南方都市报』.

- 중산대학 산업·지역발전연구센터의 량치(梁琦) 주임에 따르면 전환은 이미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서, 양적 경제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이 아닌 혁신을 통한 성장이 요구됨.
- ‘개혁’과 ‘혁신’으로 제시된 정책과제 중에는 구조조정 측면의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지역개발 및 사회보장 측면의 정책도 함께 거론되어 있음.

2. 주요경제지표 분석

■ 2013년 광둥성 지역총생산(GRDP)은 6조 2,164억 위안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였음.

- 전 세계에서 GDP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인 국가는 15개 정도로 GRDP 1조 달러 돌파(1조 38억 달러)는 광둥성의 경제발전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님.
- 광둥성의 GRDP는 경제규모(GDP) 세계 15위인 우리나라(1조 1,975억 달러)의 84%에 달하며, 16위인 인도네시아보다 1,364억 달러 많음.
- GRDP, 고정자산투자, 소비재소매총액, 재정수입, 수출입,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과 관련하여 모두 2013년 목표치를 상회하였음.
- 각각의 성장률이 0.5%포인트, 2.3%포인트, 0.2%포인트, 3.6%포인트, 5.9%포인트, 1.5%포인트 상회하였음.
- 고정자산투자 중 민간투자가 전년대비 25.5% 성장하였으며,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55.9%를 차지함.
- 소비재소매총액 증가 요인 중 전자상거래 매매규모(2조 위안)가 33% 성장하고,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소비(6,400억 위안)가 21% 성장한 것이 주효함.

표 1. 광둥성의 2013년 경제성과와 2014년 목표

항목	2013년 목표	2013년 실제 성과	2014년 목표
지역총생산(GRDP)(억 위안)	-	62,164	-
GRDP 성장률(%)	8	8.5	8.5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6	18.3	18
소비재소매총액 성장률(%)	12	12.2	13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2.5	3.5
재정수입 증가율(%) (예산 내 수입)	10	13.6	10
수출입 성장률(%)	5	10.9	1
도시등기 실업률	3.5 이내	2.4	3.5 이내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8*	9.5	8.5*
농촌 1인당 순소득 증가율(%)	8*	10.7	8.5*

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경제성장과 동일하다고 표기하였음.

자료: 「2013年廣東省政府工作報告」; 「2014年廣東省政府工作報告」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이외 2013년 1·2·3차 산업구조가 4.8 : 47.4 : 47.8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처음으로 제조업의 비중을 0.4%포인트 추월하였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내에서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광둥성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제창하면서 서비스업의 성장을 강조함.
- 2013년 역대 처음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의 비중을 초과하였으며, 이는 서비스업 성장을 강조하던 광둥성으로서는 큰 의의를 지님.
-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광저우자동차社의 대표이사인 장팡유(張房有)는 광둥성의 산업이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현대적인 산업 체제를 만드는 것이 산업고도화의 선결 과제라고 언급하였음.⁸⁾

■ 2014년 정책방향으로 내수시장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계획을 발표함.

- 광둥성은 2014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2013년보다 오히려 0.5%포인트 높게 잡았으며, 2008년 금융위기당시 수출 타격으로 인한 성장률 감소분을 소폭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광둥성의 소비재소매총액과 고정자산투자 목표 성장률은 각각 13%, 18%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2%포인트 상향 조정됨.
 - 소비재소매총액의 성장률의 목표 증가폭은 1%포인트에 불과하지만, 2013년 실제성과보다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투자보다 내수 성장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1월 기준 고정자산투자규모를 발표한 28개 지역(省)중 광둥, 톈진(天津), 윈난(云南) 3개 지역만이 2014년 투자 목표를 전년 목표보다 증대할 계획이고, 14개 지역은 축소, 6개 지역은 유지할 계획임.⁹⁾ 단, 광둥성의 투자 목표치는 2013년 실제 투자증가율(18.3%)보다 소폭 낮은 수준임.
- 2014년 광둥성의 수출입 성장률 목표는 1%로, 이는 지난 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 광둥성 사회과학원 산업경제연구소 상샤오민(向曉梅) 소장에 따르면 광둥성 수출입 규모는 이미 1조 900만 달러에 달하여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최근 미국경기가 다소 회복된 듯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1% 성장목표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¹⁰⁾

3. 경제정책 방향

■ 올해의 10대 정책과제를 각각 경제성장, 구조조정, 사회보장, 지역개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광둥성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다음으로 구조조정을 중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민생사업을 제시함.

8) 省十二届人大二次会议开幕朱小丹作省政府工作报告: 今年全省GDP预增8.5%(2014. 1. 17), 『南方都市报』.

9) 나머지 5개 성은 분명한 계획을 밝히지 않음. 『聚焦地方政府工作报告: 投资, 还要不要?』(2014. 1. 24), 『经济参考报』.

10) 『南方都市报』(2014. 1. 17), 전게서.

- 전체 10개 정책과제 중 9개 과제의 전체 또는 부분적 내용이 경제성장과 연관되며 여기에는 각각 지속적인 경제성장, 경제체제 개혁,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 추구, 산업고도화, 개방수준 제고, 농업 및 농촌 발전, 저탄소·녹색 발전 등 과제가 포함됨.
- 구조조정 측면의 과제는 제도적 차원과 산업·무역·투자 부문에서 추진되며, 네 개의 정책과제에 관련 내용이 언급됨.
- 민생과 직결된 사회보장 항목은 다른 정책과제에 비해 비교적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예산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함.
 - o 민생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각급 정부는 총 1,727억 위안을 배정하여 이를 최저생계비 지원·취업 및 사회보험·교육·서비스 등 취약계층 지원·농촌 공공 인프라 개선·재해방지 등에 사용할 계획임.
 - o 2014년 사회보장 관련 예산(1,727억 위안)은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나, 2013년 사회보장 예산의 전체 GRDP 대비 비중은 2.5% 정도로 다소 낮은 편이었음.
- 지역개발 관련 정책과제로 경제가 발전한 지역인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와 낙후된 주변지역간의 균형개발,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함.

가. 경제성장

■ 정책과제 중 ‘지속적인 성장’이 2013년에 이어 가장 서두에 제시되었고, ‘경제체제 개혁’ 과제 중 위안화 자유태환과 금융시장의 발전 도모 등이 강조됨.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정보소비 촉진 등을 중심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 o 소비수요를 확대하고 소비인프라 및 채널을 확충하며, 광저우·선전·산터우 등지에 국가급 전자상거래시범사업, 정보소비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선전 첸하이(前海)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위안화 자유태환에 대해 중앙정부에 개방수준 제고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금융·선물거래·보험 등 금융시장 발전을 모색함.
 - o 위안화 자유태환 시범사업은 선전 첸하이에 설립한 홍콩의 은행들이 중국 로컬기업을 대상으로 위안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¹¹⁾ 위안화가 중국 본토로 유입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시도한 첫 사례임.
 - o 소비금융회사를 설립해 여신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여력을 증진시키고, 내수성장에 기여함.

1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수연·김홍원(2013), 「중국 금융개혁 시범추진 현황과 평가: 저장, 광둥, 푸젠성」, KIEP 중국성(省)별 동향브리핑 참고.

표 2. 2013년과 2014년 광둥성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비교: 경제성장

2013년	2014년
1. 지속적인 경제성장 - 내수소비 진작(에너지 절약형 상품, 서비스 소비 등), *소득 분배제도 개혁, *유통인프라 및 채널 확대 - *인프라 투자 및 민간 투자비중 확대 - *가격 관리감독 강화, 독과점 및 *불공정시장경쟁 관련 조치, *안정적인 부동산시장 성장 2-1. 산업구조 고도화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및 제조업(중공업,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 *정보화 추진: IT 인프라 확충, 빅데이터 활용 등 - *기술도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광저우 난사, 선전 첸하이 등) 조성 3.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및 기업혁신 추구 - *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기술개발협력 추진 여건 조성, *금융·과학기술·산업 간의 연계 강화 - 국가급 사업인 973, 863계획 시행(원자력 발전 관련 중국(둥관)파쇄증성자원프로젝트 등)²⁾ - 과학기술 관련 해외협력(우크라이나, 이스라엘) 4. 농업 및 농촌 발전 - *농업 규모화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촌 소득증대, *관련 신기술 보급, *환경정비사업 추진 - *농촌 여신금융환경 개선, *농민 권익 증진 6-1. 대외개방수준 제고 - 수출입 증대: 선진국 시장진출 확대 및 신흥국 시장개척, 무역역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응 - *화교권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강화, *CEPA 시범사업 및 서비스무역 자유화 추진	1. 지속적인 경제성장 - 내수소비 진작: 전자상거래 및 정보소비 촉진 등 - 수출입 확대: 해외 수출판로 개척 지원 등³⁾ - (2013년 1의 * 유지)⁴⁾ 2-1. 경제체제 개혁 - 위안화 자유태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 요청 - 금융시장의 발전 도모(소비금융회사 등) 3.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 추구 - (2013년 3의 * 유지), 벤처캐피탈 발전 및 성급 시드머니 조성, 광둥성 과학금융회사 운영 등 4-1. 산업구조 고도화 - (2013년 2-1의 * 유지), 싱가포르(지식산업)·독일(제조서비스)·이스라엘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 - IT 인프라 구축, IT와 제조업의 결합, 차세대 IT 산업(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위성항법장치) 육성 5-1. 대외개방수준 제고 - (2013년 6-1의 * 유지), 기술도입을 위한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해외기업 인수합병 및 해외 에너지 자원 공동개발 추진 - 홍콩·마카오와 서비스무역 자유화 여건 조성, 아세안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협력교류 추진, 자유무역단지 건설 추진 6. 농업 및 농촌 발전 - (2013년 4의 * 유지) 9-1. 저탄소·녹색 발전 - 신에너지 자동차,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 전기자동차(대중교통수단) 시범운행 실시, 에너지 절약제품을 대상으로 구매보조금 지급

주: 1) 정책 항목 앞의 번호는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은 광둥성의 특징적인 정책임.

2) 973계획은 1997년 국가과학기술영도소조 3차 회의에서 제정한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을 말하며, 과학기술·교육을 통한 국가부흥,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음. 863계획은 덩샤오핑 주석 시절 1986년 3월에 수립된 '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을 말함.

3) 2013년에 '대외개방 수준 제고'에 포함되어 있던 수출입 확대 관련 정책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편입되었음.

4) 2013년 과제 중 *표시 과제는 2014년에 유지되는 과제임.

자료: '2013年廣東省政府工作報告'; '2014年廣東省政府工作報告'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산업고도화'와 '대외개방 수준 제고' 등 과제는 경제성장과 구조조정을 모두 겨냥하고 있으며, 기술도입·기업육성·산업단지 조성·홍콩/아세안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함.

- '산업고도화'와 '대외개방수준 제고'의 소과제 중 일부는 선진기술 도입과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 경제성장과 연관되고, 다른 일부는 역내 시장을 개방하여 과점 구조인 시장에 충격을 주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구조조정과도 연관됨.

○ 가령, 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의 산업 수준은 비교적 낙후되고 소수 기업에 의해 시장이 과점되며 로컬기업의 진입만이 허용됨. 여기서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에 뒤쳐진 기업이 도태됨.

- 외자와 민간자본에 대해 특정 지역 내 일부 서비스업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자유무역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주장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도모함.

- 2014년 광둥성은 자유무역단지 설립을 중앙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외자유치 규정상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중국·싱가포르(광저우)지식도시, 포산(佛山)시 중국·독일제조서비스단지, 중국·이스라엘(둥관)산업단지 조성 등 선진국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받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 한편 2013년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광저우, 포산, 윈푸(雲浮), 둥관 등지에 스마트시티 건설사업 추진이 있었으나 2014년에는 제외됨.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차세대 IT 산업과 신에너지자동차·에너지절약제품 등 저탄소·녹색 산업 육성을 강조하였음.
- 2013년에 이어 홍콩과의 서비스업 협력, 대만과의 첨단기술 및 서비스 무역 분야 협력,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을 강조함.
- 홍콩과 금융, 상업, 전문서비스, 과학기술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2013년과 비교해 추가적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해상 실크로드 건설¹²⁾과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의 선도 지역으로 앞장설 것을 제시하였음.

나. 구조조정

■ 시장경쟁을 강조하는 경제체제 개혁이 중시되고, 2013년에 이어 저부가가치 업종을 도태시키고 과잉생산품목의 감산을 추진할 계획임.

- ‘경제체제 개혁’ 과제가 전년대비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소과제 내용이 증대되었으며, 기존 국유독점 부문에 대한 공평한 시장경쟁 도입과 주식·지식재산권 등의 매매시장 조성이 언급됨.
- 2013년에 ‘경제체제 개혁’ 과제는 여러 개혁과제 중 하나에 속했지만 2014년에는 단독과제로 명시되고 우선순위도 상승함.
- 추가적으로 민영기업의 국유자본 투자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고,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명시된 투자금지 항목 이외의 모든 시장을 개방하도록 할 계획임.
- 전통 제조업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과잉생산업종 기업의 생산규모를 감소시키고 합병과 폐업을 통해 저부가가치 업종의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임.
- 2013년에는 도태산업 리스트에 포함된 93개의 기업이 폐업하였고,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시멘트 1,697만 톤, 제지 13만 6,000톤, 피혁 10만 장 등의 감산 목표를 달성함.
- 광둥성 핵심 도시에 소재한 기업 중 저부가가치 업종을 외곽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우수 노동력은 도시로 유입한다는 ‘쌍전이(雙轉移)’에 대한 내용이 축소됨.¹³⁾

12)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당시 중·아세안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무역개방 수준을 제고하여 2020년까지 양자간 무역규모를 1조 달러로 증대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가칭)’을 설립하며, 해양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취지에서 공동으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후에 중국의 각 지방정부측이 중앙정부의 해당 정책방향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연관된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习主席出访取得重要成果」(2013. 10. 9), 『北京晚报』.

- 2013년에는 ‘기업 이진용 산업단지’ 조성, 저부가가치 기업 및 노동력 이진이 강력하게 제창되고 관련성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2014년 들어서는 농촌노동력의 도시이전 방안이 중점적으로 제시됨.

표 3. 2013년과 2014년 광둥성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비교: 구조조정

2013년	2014년
5-1. 경제·행정 개혁 - *재정 및 금융: 공공요금 가격결정제도 개선, 재정예산 및 결산 관련 감독 강화, 정부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 *행정처리 간소화, 현금정부 대부제(大部制)³⁾ 실시, *정부평가 관리 강화 및 사업단위 개혁 심화 - *상거래 시장질서 확립,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6-2. 대외개방수준 제고 - 무역, 투자 관련 구조조정 및 질적 성장 추구: 투자유치업무혁신 3개년 계획 제정*, 가공무역 업그레이드: 등관시 시범사업 추진* 8. 적극적인 생태보호 - *자원의 집약적인 활용,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제조시설·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친환경건축) - *국가급 저탄소 시범사업 선정 및 탄소배출권매매 시범사업 추진, *환경정비 및 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PM2.5와 오존 등 대기오염 수치 관리 10. 청렴하고 효율적인 정부 - 삼공(三公)소비⁴⁾와 일반지출을 엄격히 통제, 정부 정보공개 강화, *행정업무의 전자시스템 도입	2-2. 경제체제 개혁 - 다양한 소유제 및 혼합소유제 경제 도입을 통한 시장경쟁 유도 - 주식, 지식재산권, 기술 등의 매매시장 조성 - 공평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2013년 10의 * 유지), 정부업무 효율성 제고 - (2013년 5-1의 * 유지), 예산관리제도 개선 및 투명성 제고, 정부채무 관리감독 강화 및 경보체계 구축 4-2. 산업구조 고도화 - 전통 제조업의 신기술 도입과 기업간 인수합병, 환경기준 적용 등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추진 - 외자와 민간자본에 대해 서비스업 시장진입장벽 완화 5-2. 대외개방수준 제고 - (2013년 6-2의 * 유지), 투자유치혁신 3개년 계획, 가공무역업 업그레이드 계획 지속 추진 9-2. 저탄소 녹색발전 - (2013년 8의 * 유지), 대기오염수치 관리, 지적조사 및 부동산 등기 통합 실시 등 토지의 집약적 이용방안 모색 - 환경보호 강화 및 청정 생태환경 조성, 관련 법 규정 및 제도적 여건 개선, 환경오염책임보험 시범 실시

주: 1) 정책 항목 앞의 번호는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은 광둥성의 특징적인 정책임.

2) 2013년 과제 중 *표시 과제는 2014년에 유지되는 과제임.

3) 대부제 개혁은 정부기관의 행정비용 감소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 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을 말함.

4) 공무원의 출장경비, 공무원 차량 구매 및 유지비, 공무원 접대비 3대 공무원비용을 의미.

자료: 「2013年廣東省政府工作報告」; 「2014年廣東省政府工作報告」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가공무역 업그레이드 3개년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역과 투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도농 부동산 통합등기 및 건설용지 통합시장 조성 등 토지 관리를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었음.

- 등관(東莞)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중인 ‘가공무역 업그레이드 3개년 계획(브랜드 개발, 기술 및 디자인 자문, 판로 개척 등)’을 2014년에도 지속 추진함.

- 기존 광둥성 가공무역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3년에는 전체 가공무역 업체 중 ODM(제조업자 설계생산)과 자가 브랜드 부착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 비중이 전체 가공무역 기업의 63%로 전년 대비 8.3%포인트 증가하였고, 내수판매 비중은 43.7%로 전년대비 2.6%포인트 증가함.

13) 쌍전이(雙轉移)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지현(2011. 3. 7), 「주요 성(省)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광둥(廣東)성」, KIEP 중국성(省)별동향 브리핑 참고.

- 광둥성은 2013년 11월 「투자유치혁신 3개년 계획(創新招商引資工作行動綱要(2013-2015))」을 발표하였고, 이를 2014년에도 지속 추진함.
- o 당해 계획에는 3년간 투자유치액 750억 달러 이상, 투자유치 업종 중 서비스업 비중 45% 이상, 역내 낙후지역의 투자유치 비중 15% 이상, 선진국 및 다국적 대기업의 신설 또는 증설투자 100건 이상 등의 업무 목표를 제시하였음.
- 기존에는 토지의 집약적 사용을 위해 도농 간 건설용지 계획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차원에서 그쳤지만, 2014년에 추가적으로 도농 건설용지 통합시장 구성과 농촌지역 지적(地籍)조사¹⁴⁾ 및 토지·주택·임야 등의 부동산등기 통합실시를 언급하였음.
- o 도농 건설용지거래 시장과 부동산등기의 통합은 중앙의 '18기 3중전회(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이며, 올해 6월 중앙정부의 유관부처에서 부동산 등기통합에 대한 조례를 발표할 계획임.

■ 차이나리스크로 문제시되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감축안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예산확보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만 언급함.

- 광둥성은 지방채권 시범발행지역 중 하나로 지난해 121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점진적으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초과예산을 확보하도록 시도하고 있음.¹⁵⁾
- 대규모 인프라 건설 투자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채증대 우려에 대해 고정자산 투자재원 중 민간자본의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대응함.

다. 사회보장

■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회보험 및 의료서비스 확대 등 이른바 민생 10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을 10% 상향조정함.

- 민생·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취업, 사회보험제도 개선, 노동권익 강화, 주거안정 등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내용에 초점을 맞춤.
- 도시 신규일자리 창출 120만 명, 창업 10만 명, 재취업 50만 명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14) 토지에 관한 위치, 소유권, 면적, 인접대지경계선, 용도, 등급 등의 호적(등록) 조사.

15)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대출상환을 위한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지역은 상하이(上海)시, 저장(浙江)성, 광둥성, 선전시, 산둥(山東)성, 강쑤(江苏)성 등 6개 지역임. 자세한 내용은 김홍원(2013. 7. 15), 「중국, 지방채 시범발행 확대 실시」, CSF 省별이슈분석 참고; 「广东今年发行121亿地方债券」(2013. 7. 30), 『信息时报』.

- 양로보험 지급액을 월 65위안에서 80위안으로 상향조정하고 어민과 어선을 대상으로 어업정책성보험을 도입, 운영할 계획임.
- 주거안정을 위하여 5만 178채의 보장성 주택을 신규착공하고, 3만 7,538호의 노후 주거시설을 개조함.

표 4. 2013년과 2014년 광둥성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비교: 사회보장

2013년	2014년
9. 민생 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민생 10대 과제 추진(예산 규모 1,576억 위안) · 계층별 일자리 확대, *취업·창업 지원: 창업 10만 명, 도시 신규일자리 창출 120만 명, 재취업 60만 명 · *노동권익·사회보험제도: 양로보험 지급액을 월 55위안에서 65위안으로, 퇴직근로자 양로보험 지급액을 10% 상향조정, 사회보험카드 3천 만장 신규발급 · *교육: 중등직업교육 학비면제, 낙후지역 교육시설 확충 및 교사 지원금 지급, 의무교육 보조금 지원액 초등 550 → 770 위안/중등 750 → 1,150위안 상향조정 · *문화: 낙후지역 도서관 설립 ·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현금 공립의원의 의약품 보급 확대, 영가 병원 및 약국 설립 등 - #빈곤층 구제: 광둥 빈곤층 구제일 지정 및 활동 추진 - *#농민공의 도시정착 지원 및 처우 개선: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임금체불감독 강화, 임금단체협상제도 도입,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 #사회치안 개선: 폭력조직 및 마약 등 사회범죄, 금융사기 및 지식재산권 침해, 밀수, 탈세 등 경제사범,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엄벌 - #의료체계 개선, 민간자본의 병원설립 장려: 농촌의 의료위생 서비스 네트워크 및 현금 공공병원 관리 강화, 전자의료기록 관리 도입	7-1. 신형도시화 추진 - (2013년 9의 * 유지), 농업인구의 도시민 전환 지원 - 보장성주택 건설 및 노후 주거시설 개조사업 - 대중교통·생활폐기물 처리 등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10. 민생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회건설 민생 10대 과제 지속 추진(예산 규모 1,727억 위안) · 사회보험: 양로보험 지급액 월 80위안, 11만 명 어민과 1만 척 어선에 대해 어업정책성보험 제공, 장애인 보조금 연간 최대 1,200위안 지급 · 취업 지원: 재취업 50만 명, 60만 명 도시이전 근로자의 직업교육프로그램 지원 · 의료보장: 의료보험 1인당 보조금 연간 320위안 지급 · 교육: 의무교육 보조금 지원액 초등 950위안, 중등 1,550위안, 낙후지역 교사지원금 700위안으로 상향조정 · 문화: 농촌지역 26만회 공익영화 상영, 낙후지역 30개의 문화관·박물관 설립 · 주거안정: 보장성주택 5만 178채 신규착공, 노후 주거시설 3만 7,538호 개조 · 대기오염 수치 실시간 검측 및 예보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직업교육·특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의 활성화, 민간교육의 발전, 국제교육기관과 합작사업 추진 식품안전 강화: 생산추적 시스템 도입 농민공 인력시장의 질서 확립, 노사분규조사 및 조정업무 강화, 노동력이전 시범단지(區域勞動轉移示範區) 및 국가급 노동관계 시범단지(勞動關係綜合試驗區) 건설 -(2013년 9의 # 유지)

주: 1) 정책 항목 앞의 번호는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은 광둥성의 특징적인 정책임.

2) 2013년 과제 중 *, #표시 과제는 2014년에 유지되는 과제임.

자료: 「2013年廣東省政府工作報告」; 「2014年廣東省政府工作報告」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2014년 국제학교 설립, 사설교육시장의 발전, 노동력이전 시범단지, 국가급 노동관계 종합시범단지 구축 지원 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임.

- 홍콩·마카오·대만 등 국제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설립 및 교육부문 정보화를 추진함. 또한 사설교육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함.

- ‘노동력이전 시범단지(區域勞動轉移示範區)’를 조성하고 80만 명 농촌인력의 도시 이전 및 취업을 지원할 계획임.
- 계절별 또는 업종별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력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임.
- 분유·육가공 제품의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생산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노동쟁의관련 조사 및 노사관계 조율 업무를 강화하고 ‘국가급 노동관계 종합시범단지(勞動關係綜合試驗區)’를 건설토록 함.
- 광둥성의 노동쟁의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증가하다 2013년 처음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나, 전국에서 그 빈도가 가장 높음.¹⁶⁾

라. 지역개발

■ 광둥성 지역개발의 큰 방향은 지역 균형발전이며, 2013년과 달리 ‘신형(新型)도시화 추진’이 추가적으로 제시된 반면 해양경제 발전에 대한 내용은 축소됨.

- 광둥성은 도시화 수준이 높은 주장삼각주와 역내 낙후지역인 동·서·북부 간에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두어 인프라 구축 및 사모펀드 설립 등을 추진 중임.
- 주장삼각주는 2013년 대도약(大跨越)시기에 접어들었으며,¹⁷⁾ 광둥성 정부는 무역·투자유치·산업발전 등과 연관된 64개 평가항목을 제시, 주장삼각주 9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시행할 계획임.
- 동·서·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2013년과 유사하게 지역간 연계성을 증진시키는 교통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면서, 2014년에 추가적으로 ‘동서북부 진흥발전 사모펀드’ 설립 추진을 계획함.
- 광둥성 동부는 푸젠성(福建), 서부는 광시(廣西) 자치구, 북부는 장시(江西)성 등 인접 지역(省)과의 협력을 통해 광둥성 내 저발전 지역의 경제권을 조성하고 발전시킬 계획임.
- 2013년 ‘지역간 균형발전 추구’의 소과제로 언급되었던 신형도시화가 2014년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어, 그 중요성이 증대했음.¹⁸⁾
- 도시화 추진 관련 자원 마련 및 개발 효율성을 강조했으며 정책금융수단개발, 사회자본의 투자 및 운영 참여 등 다양한 투융자 방안을 고안할 계획임.
- 2013년에 제기되었던 해양경제 종합시범단지, 해양경제 주체기능단지, 주변 섬 개발 등이 모두 언급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확실함.

16) 2012년 기준 중국 지역별 노동쟁의 발생 건수의 비중은 광둥성이 23.6%로 1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장쑤성이 18.2%를 차지함. 中国劳动网(<http://www.laboumet.com.cn/ldzy/ckzl/ckzl2b.asp>, 검색일 2014. 2. 19); 『广东民事收案量突破50万大关』(2014. 1. 14), 『法制日报』.

17) 2008년에 발표된 ‘주장삼각주 개혁발전계획 개요(珠江三角洲地区改革发展规划纲要(2008-2020年))’에 제시된 개념으로 초기 4년을 대발전(四年大发展) 시기, 후기 9년을 대도약(九年大跨越) 시기로 구분하고, 2013년 지난 5년의 발전성적을 점검하고, 9년 대도약업무방안(实施<珠三角规划纲要>实现“九年大跨越”工作方案)을 제정, 향후 대도약 시기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함.

18) 신형(新型) 도시화는 과거에 맹목적으로 도심공간을 확장하는 형태의 토지개발사업을 위주로 한 도시화에서 벗어나 사회적·산업(경제)적·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도시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중국에서 구분하여 칭함.

표 5. 2013년과 2014년 광둥성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비교: 지역개발

2013년	2014년
2-2. 산업구조 고도화 - 해양 종합시범단지 건설, 임해경제권 발전 촉진, 광저우 난사(南沙) 룡쉐다오(龍穴島), 잔강(湛江) 등하이다오(東海島) 개발, *해양자원을 활용한 기술과 해안선 인접도시의 중공업 발전 7. 지역간 균형발전 추구 - ‘쌍전이(雙轉移)’: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의 권한 중대, 우수 산업단지의 확장 건설, *산학협력 주문식 직업훈련교육 실시 - *도시화 수준 제고와 도농일체화 추진: 농업인구의 도시민화 추진, *도농 간 발전계획·인프라·공공서비스 통합 추진(공평한 자원배분) - 주장삼각주의 지역경쟁력 강화: *‘9년 대도약방안(九年大跨越)’ 제정, *도로 등 기초 인프라의 연결성 제고, 지역간 효율적 자원 배분과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공공서비스·도농계획·물류·산업배치·환경보호 등 분야의 통합된 계획 추진 - 동·서·북부 지역의 추격성장 도모: 산터우(山頭)시 하이완(海灣) 신구 등 신구(新區) 설립	4-3. 산업구조 고도화 - (2013년 2-2의 * 유지), 해안선 인접도시의 산업발전, 2014년 해양경제박람회 개최 7-2. 신형도시화 추진 - (2013년 7의 * 유지), 농업인구의 도시민화, 수도·전기·가스 등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및 저탄소생태도시 시범사업 실시 - 광저우와 선전을 중심으로 도시발전계획의 내실화 추구, 민간자본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 8. 지역간 균형발전 추구 - (2013년 7의 * 유지), 주장삼각주의 지역경쟁력 강화: 선전·중산대교 건설, 9년 대도약방안(九年大跨越) 지속 추진 - 동·서·북부 지역의 추격성장 도모: 적극적인 투자 유치, ‘동서북부 진흥발전 사모펀드’ 설립 추진, 범주장삼각주 및 주변 성(省)과의 협력 강화, 빈곤지역 개발

주: 1) 정책 항목 앞의 번호는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은 광둥성의 특징적인 정책임.

2) 2013년 과제 중 *표시 과제는 2014년에 유지되는 과제임.

자료: 「2013年廣東省政府工作報告」; 「2014年廣東省政府工作報告」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4. 평가 및 시사점

■ 광둥성은 기존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향후 내수주도형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발전모델 전환과 지역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광둥성은 중국 내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발전 수준도 높은 지역이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의존도를 높이는 성장방식의 전환을 강조함.
 - 광둥성의 GRDP는 중국 전체 GDP의 11%를 차지하기 때문에 광둥성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는 중국 전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
 - 중국 내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동부 지역에서 올해 대부분 성장률을 낮추거나 유지하고 있는 반면, 광둥성은 0.5%포인트 높이고, 2018년까지 연평균 8%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4년 수출입 성장률 목표치를 1%로 낮추고, 소비재소매총액 성장률 목표치를 13%로 제시하였음.
- 광둥성은 1980년대 이래 가공무역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과거의 발전모델에 한계를 느끼고, 발전방식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직후인 2008년부터 광둥성 내 수출가공무역기업이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동관시를 시범케이스로 하여 ‘가공무역 업그레이드 계획’을 추진, 점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광둥성의 21개 지급시간 경제수준 격차는 중국 동부와 중서부지역 간 격차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지역격차를 축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
- o 광둥성 선전 시의 1인당 GRDP는 상하이 시보다 높은 수준이나, 메이저우(梅州) 시의 1인당 GRDP는 중국 최빈 지역 중 하나인 구이저우(貴州) 성과 비슷한 수준임.
- o 낙후된 동·서·북부 지역의 투자유치와 교통인프라 확충을 강조하고 지역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제시하나, 이는 지역격차 축소 및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접근임.

■ 광둥성은 중국 내 31개 지역(省市) 중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경제관계가 있는 지역 중 하나이며, 최근 무역·투자 규모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광둥성 정부는 중국 내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 중앙부처(산업자원통상부)와 정부간 협의체인 ‘한·광둥성 경제무역 발전포럼(장관급 회의)’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환경산업, 서비스업 협력을 위주로 논의가 이뤄져 왔음.
- 2013년 중국 내 한국과의 무역액이 가장 큰 지역은 광둥성으로 2위인 장쑤성보다 62억 달러 많은 674억 달러를 기록했음.
- o 한국의 주요 수출입품목은 전자부품·컴퓨터 및 통신 장비이며,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 기기 생산공장이 광둥성 광저우시, 후이저우(惠州) 시에 소재한 것과 크게 연관됨.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對)광둥성 투자누계는 13억 달러로 이는 한국의 대(對)태국 투자보다 약 4억 달러가 많고, 대(對)인도 투자의 76%에 달함. 다만 중국 내 3위로 수출보다는 낮은 순위임.
- o 주요 투자업종은 수출입품목과 유사하여 전자부품·컴퓨터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화학제품 제조업임.

■ 전자상거래 및 정보통신서비스 등 신성장 소비시장의 진출, CEPA와 같은 지역특화사업 및 금융·산업설계·차세대 IT와 같이 광둥성 정부차원에서 육성하는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 지금까지 한국의 대광둥 수출은 자본재 및 부품 위주로, 전자·통신장비 업종 위주였으나, 최근 광둥성에서 급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내수시장 진출 및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진출이 유망함.
- o 광둥성의 소비시장 규모는 중국에서 가장 크며 2012~17년 동안 1조 3천 억 위안이 증대될 전망으로, 이는 5년간 중국 전체 소비시장 성장규모의 12%에 해당함.¹⁹⁾
- 광둥성 CEPA의 선행시범 실시, 서비스무역 자유화 추진, 프랜차이즈사업의 진입제한 완화 등과 같은 정책들을 활용하여 서비스 분야 진출을 적극 고려해야 함.
- 광둥성 정부에서 육성하는 산업 중 서비스업은 금융·물류·문화창의·산업설계, 제조업은 철도·자동차·석유화학, 전략적 신흥산업은 차세대 IT·신에너지·신소재 등의 협력이 기대됨. KIEP

19) 양평섭 외(2013),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 KIEP 연구보고서 13-21.